

꿈★과 희망을 찾아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사람은 아무리 고달파도 꿈★과 희망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한 그 고난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고난에 도전합니다. 우리 농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규모화정책이다” “가족농 육성이다”하는 정책판단의 미스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퇴보하고, 농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71조원이 넘는 “전문화적인”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통계상으로 농가소득은 IMF직전 96년에 비해 작년까지 겨우 118만원이 늘었습니다. 생활비는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IMF직전에는 도시근로자가구와 소득이 비슷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이후 도시근로자들의 월급은 꾸준히 올라갔으나, 농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젊고 의욕적인 전업농민들이 정부의 규모화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이들은 더 큰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빛값을 길이 안 보이는데 FTA다 DDA다 하면서 지금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개방이 확대된다니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자나 일반경제학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개방은 대세라고 하면서 국익을 위해 농업계가 양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DDA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FTA협정이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업보호 때문에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한 WTO체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UR이후에 전문화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는 농업에 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대규모 지원을 하려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한다며 데모를 하고, 이에 부화뇌동한 정치권이 농가 빛을 “탕감”해 주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왜 절규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신문에 기사 한 줄 실리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DDA협상타결과 FTA를 체결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 속하게 되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넘비현상’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고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불편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관계가 되었을 때는 “결사반대”하는 게 현실입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를 가지고 연예인들도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했습니까? “국익”이란 이름으로 어떤 개인이나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집단이기주의입니다. 더구나 농민들은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농업계는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농업계는 농업을 적정수준 유지하고, 농민을 농촌에 머무르게 하는 투자와 지원이 낭비적인 지출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수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들 나와 별로 상관없는 곳에 매년 몇 조원씩의 세금을 쓰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용납하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농업·농촌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급격한 개방으로 농업·농촌이 붕괴되면 농민들은 ‘기회의 땅’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시는 지금도 만원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 값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서울의 하늘은 검은 스모그로 뒤덮여 있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옮기려 하고, 경제가 나빠도 수도권에는 공장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도 도시의 생활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 없고 기술 없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어디에 거주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농민도 불행해지고, 불우한 이웃을 두게 되는 도시인도 불안해질 것입니다. 농민을 농촌의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앞날을 보고 우리의 강토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농민들

이 농촌에 살면서 ‘국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키가 큰 과목을 심는 것에 대해, 아름다운 생울타리에 대해, 경관이 좋도록 좁고 길게 심은 작물에 대해, 높은 산등성이에 목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농촌풍경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꾸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강토를 닦치는 대로 “개발”하고 나서 20년, 30년 후에 가서야 후회할 것인가? 여의도광장을 복원하고,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돈은 얼마나 많이 들며, 주변 사람들의 불편은 얼마나 큰가? 농촌과 도시를 함께 생각하는, 우리 강토 전체를 삶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정책적인 비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WTO와 FTA협정에서 아무리 협상을 잘하더라도 농산물의 대폭 개방은 불을 보듯 뻔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몇 십조 원 아니면 백 조원이 넘는 ‘농촌지원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농업현장의 농민, 그 중에서도 전업농업인인 우리 한농연 회원들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 될 것이며, 우리 농업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대책’을 세운다면, 적어도 퇴출시키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농민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농업정책연구소는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오로지 회원님들의 꿈★과 희망을 찾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누가 말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희망이 만든 것이다”라고. **한농연**